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ythology of Taiwanese Aborigines and Traditional Housing Culture

Kwonsoo Na¹, Seogju Lee², Yeongjoo Kim^{3*}

^{1,3}Daejin University, ²Dongguk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ythology of Taiwanese aborigines and the traditional housing culture, and to examine the aspect of the myth reflected in real life by revealing the link between the myth and the traditional housing.

[CONTENTS] The living space is a museum in itself as it contains the entirety of human life. In particular, housing culture comprehensively embodies the culture of a region, such as a society's lifestyle, values, aesthetic sense, family system, technological level, geography and climate. However, research on traditional housing in Taiwan is relatively incomplete and limited. It plays a complementary role in understanding Taiwanese culture and its cultural characteristics in that the composition of housing types is not limited to physical phenomena. To this end, research on traditional housing culture is approached from various and three-dimensional perspectives.

[RESULTS] The traditional dwellings of Taiwanese aborigines are characterized by nature-friendly aspects, horizontal structures of living spaces, and independent kitchens. Here, it is confirmed that various aspects of the mythology of Taiwan's aboriginal people are reflected. As a result, it complement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results that have been discussing mythology and traditional housing culture as separate subjects, and confirms the harmony between gods and humans, and humans and nature.

[KEY WORDS] Taiwan, Taiwanese Aborigines, Mythology, Traditional Housing Cultur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7S1A5A2A03068766).

* **Corresponding to** Yeongj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e Contents, Daejin University)
E-mail: eureka0710@daeji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와 전통주거문화의 상관성 연구

나권수¹, 이석주², 김영주³

¹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강사, ²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

³대진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와 전통주거문화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신화와 전통주거의 연결고리를 밝힘으로써 신화가 실제 삶에 투영된 면모를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주거공간은 인간의 삶 전반이 깃들여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박물관이다. 특히 전통주거문화는 한 사회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미의식, 가족제도, 기술수준, 그리고 지리와 기후 등 한 지역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타이완의 전통주거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제한적이다. 주거형태의 구성이 물리적인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타이완의 문화와 그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보완적 역할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전통주거문화에 관한 연구를 다양하고 입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결론] 타이완 원주민족의 전통주거는 자연 친화적 양태, 거주공간의 수평적 구조, 독립주방의 구성 등이 특징이다. 여기에서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의 다양한 면모가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 결과 신화와 전통주거문화를 별개의 주제로 논구해 왔던 기존 연구 성과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확인한다.

[주제어] 타이완,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 전통주거문화

I. 문제 제기

의식주 문화 속에는 한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담겨 있다. 특히 주거문화는 한 사회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미의식, 가족제도, 기술수준, 그리고 지리와 기후 등 한 지역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 요컨대 주거공간은 인간의 삶 전반이 깃들여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박물관이다(Kim, 2021: 4). 이러한 관점에서 타이완의 전통문화, 종교, 언어, 역사, 교육정책 등 다채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인택(2016), 홍윤희(2020), 이주노(2022), 이명아(2023) 등은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신화에 반영된 서사구조, 윤리 의식, 풍습 등을 분석했다. 공봉진(2007), 정영신·백영경(2015) 등은 타이완 원주민족의 정명운동과 토지반환운동을, 김정호(2010)는 타이완 원주민과 관련된 다문화 교육을 제안하였고, 김중섭(2015), 리이치(李憶琦)·한용수(2020) 등은 타이완의 언어정책에 관해 고찰했다.¹⁾

하지만, 타이완의 전통주거문화와 신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제한적이다. 주거형태의 구성이 물리적인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각 나라의 문화와 그 문화적 특질을 이해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전통주거문화가 신화와 구분하여 별개의 것으로 논의할 수 없음에도 신화와 전통주거문화를 구분해 논의하면서 전통주거문화 형성에 미친 신화의 파급효과를 간과하였다. 이는 타이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동아시아 전통주거문화 연구 전반에 나타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제주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이고 소략한 연구 성과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과 타이완에 관한 연구 성과는 전무했다.

최근, 이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해 전통주거문화 형성에 미친 신화적 요소를 분석하고 상호연결고리를 밝히는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거문화에 반영된 신화의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신화가 인간의 실제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예컨대 제주전통민가의 공간배치에 투영된 제주도 신화와의 통합적 사유구조에 관한 연구, 오키나와 신앙과 전통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제주도와 오키나와 전통주거 공간과의 상관성 비교 연구 등이 그것이다.²⁾

1)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인택(2016), 타이완 원주민 신화의 이해, 고양: 학고방; 홍윤희(2020), 타이완 찌우족의 머리사냥 신화에 나타난 폭력과 생태윤리, 중국소설논총 61; 이주노(2022), 대만 원주민의 홍수신화 연구, 중국문화 111; 이명아(2023), 타이완 원주민 신화의 동·식물 상징 의미와 문화, 철학·사상·문화 41; 공봉진(2007), 대만 원주민족의 정명운동, 중국학 28; 정영신·백영경(2015), 대만 원주민의 토지반환운동과 공동체-공동자원 관계의 변동, ECO 19(2); 김정호(2010), 타이완의 다문화 교육과 사회과교육, 사회과교육 49(2); 김중섭(2015), 대만 원주민족어 보존 정책에 대한 고찰, 언어학 연구 20(1); 李憶琦·한용수(2020), 淺析臺灣和中國大陸語言政策的未來與展望, 한중인문학연구 68.

2)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영주(2016), 제주전통민가의 공간배치를 통해 본 제주도민의 종교심에 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2; 김영주·이석주(2017), 제주여신신화에 투영된 여성들의 통합적 사유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86; 김영주·백유정·이석주(2018), Myth and Architecture: Focused on the

이는 신화를 중심으로 전통 주거문화를 분석함으로써 원주민들에게 내재한 사유체계와 종교심이 실제적 삶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지니는지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사적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신화와 건축이라는 틀에서 신화의 실존적 의미, 즉 신화가 전통민가의 공간배치에 미친 영향을 논구함으로써 기존 연구 성과를 보완하였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제주 신화와 일본 오키나와 신앙의 전통주거문화 상관성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그 결과 동중국해 문화권 가운데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와 전통주거문화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다만, 윤일이(2017)의 한국, 일본, 타이완 등지를 중심으로 해양민가를 분석하고 남방문화 건축의 특성과 동중국해 문화교류를 종합 고찰한 저서가 대표적이며, 이명아·구광범(2021)의 관련 연구가 있다.³⁾

대부분의 나라는 그 나라만의 신화가 존재한다. 신화는 그 나라 그 민족에 있어서 자신들의 신앙과 풍습 그리고 역사까지도 드러내는 소중한 자산이다. 즉, 종교와 철학 그리고 문학의 원천으로서 고대인들의 관념과 삶의 체현이다. 신화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수십 세기 동안 소멸하지 않은 채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스며들어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느 나라에서든 한결 같이 민족의 시원을 신화에서 찾고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해 준다. 이는 관점을 달리하면 신화를 통해 문화의 독자성을 확인하고 다각도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전통주거문화를 통해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확인해 보는 작업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타이완 전통주거가 단순 편의를 위한 공간배치를 넘어 주거 공간을 통해 신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위한 종교성이 내재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타이완의 독자적인 문화와 그 인식체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타이완은 중화권의 대표적 전통문화를 보유한 지역이자 고급 이래 우리나라와의 관계 또한 긴밀한 만큼 본 연구는 국내 학계는 물론 중국학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Correlation between the Jeju Myth and Jeju Traditional Houses, *한중인문학연구* 60; 백유정·이석주·김영주(2019), The space composition of the traditional houses in Jeju through 'Moon jeon bon pu ri',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9(1); 백유정·이석주·김영주(2020), 오키나와 신앙과 전통주거의 공간구성 조사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3); 이석주·김영주(2021), Hole and Chaos: Focused on Snake Myths of Jeju Island, Korea and Okinawa, Japan, *철학·사상·문화* 37; 이석주·김영주(2022),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yth of two islands and traditional residence space, *종교교육학연구* 71.

3) 윤일이(2017), *동중국해 문화권의 민가*, 부산: 산지니; 이명아·구광범(2021), *원주민 신화를 상징하는 타이완 전통건축 문화*, *한중인문학연구* 73.

II. 타이완 원주민족과 신화

타이완은 중국과는 다른 독립된 국가임을 주장한다. 타이완 정부는 그동안 장제스(蔣介石)와 장징궈(蔣經國) 등 타이완을 통치해 왔던 국민당의 기억을 지우고, 타이완의 국영기업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국, 중화라는 표현을 고쳐 독립된 주권국가임을 내외에 인식시키는 이른바 정명(正名)운동을 추진했다. 탈중국화를 위한 일련의 정명운동은 타이완의 정체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적 형태로서 나타나는 타이완의 정명운동과 함께 타이완 내부에서는 원주민족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Kong, 2007: 472). 타이완 원주민족의 민족정체성 회복에 관한 정명운동은 198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학자들에 의해 정체성이 이미 사라져 한족화된 민족으로 분류되었던 평포족과 타이완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원주민족들의 정명운동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타이완 원주민족의 신분증 성명 표기, 성씨 규정, 원주민 등록 기한 등을 이슈로 정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명대 이후 문헌들에는 타이완 원주민과 관련한 다양한 명칭이 등장한다(Kong, 2007: 476-479). 타이완의 청조 통치시기에는 타이완 원주민을 번족(蕃族)으로 통칭하면서도, 거주 지 형에 따라 고산번(高山蕃)과 평포번(平埔蕃)으로, 청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생번(生蕃), 화번(化蕃), 숙번(熟蕃)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일제시기에는 청조의 구분을 이어받았으나, 1930년의 우서사건 이후에는 고사족(高砂族)과 평포족(平埔族)이라는 구분을 사용했다. 이는 일본 고문헌에서 타이완을 ‘고사(高砂)’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타이완 원주민을 구별 짓는 기준이 소수민족의 관점이 아닌 지배계층의 편의에 따라 결정지어졌다는 사실이다. 국민당 정부 시기에는 기존의 고산족만을 원주민의 범주에 포함해 이를 고산족(高山族) 또는 산지동포(山地同胞)라고 명명하다가 1994년부터 원주민들의 개칭 요구에 따라 원주민으로, 1997년부터는 원주민족으로 칭하고 있다(Jeong & Paik, 2015: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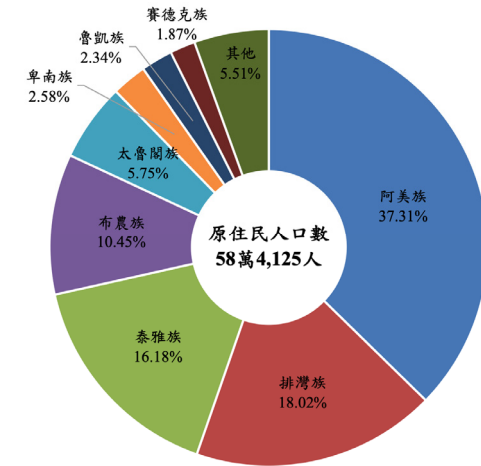
타이완 인구는 대륙에서 이주한 한족과 원주민족으로 구성된다. 그중 타이완의 원주민족은 타이완 전체 인구의 약 2.47%(58만 4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Ministry of the Interior, R.O.C., 2023.01.27.). 일제시기 타이완 총독부는 고산족을 9개의 부족(高山九族)으로 나누었고, 광복 이후 타이완 정부 역시 이 분류를 따랐다. 2000년대 민진당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원주민족의 수도 늘어나 현재 타이완 정부는 16개를 공식 인정하고 있다. 아메이(阿美)족, 타이아(泰雅)족, 부농(布農)족, 쩌우(鄒)족, 루카이(魯凱)족, 파이완(排灣)족, 베이난(卑南)족, 다우(達悟; 雅美)족, 샤이사(賽夏)족, 샤오(邵)족, 가마란(噶瑪蘭)족, 타이루거(太魯閣)족, 썬치라이야(撒奇萊雅)족, 썬이더커(賽德克)족, 라아루아(拉阿魯哇; 沙阿魯阿)족, 카나카나푸(卡那卡那富)족 등이다.⁴⁾ 하지만 이 외에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인정만을 받은 원주민족과

4) 공인 절차는 원주민 부족에서 일정 인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고, 정부가 학자에게 언어학, 인류학 등의 학술적 근거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인증한다. 아메이족, 타이아족, 부농족, 쩌우족, 루카이족, 파이완족,



[그림 1] 타이완 원주민족 분포도

[Figure 1] Distribution of Taiwanese Aborigines



[그림 2] 원주민족별 인구비율

[Figure 2] Population Percentage by aboriginal Tribe

양측 모두의 공인을 받지 못한 미식별 민족까지 포함하면 40여 개의 다양한 원주민족이 존재한다(Hankyoreh, 2022.11.12.).

이들은 5천 년 이상 타이완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언어문화와 풍속, 그리고 관습을 형성해왔다. 특히, 거주지역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인구수 또한 많지 않지만, 타이완 원주민족의 신화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하고 풍부한 서사를 보여준다. 신화는 문화의 원류인 동시에 고대인의 사유와 축적된 문화를 꾸밈없이 반영한 고사이다. 그러나 신화의 지역적 문화적 편향성 앞에 타이완 신화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신화는 세계 각 지역에 산재해있다. 하지만, 대체로 그리스·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 등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동아시아 신화 또한 중국과 일본 신화가 신화학의 주된 대상이었다.

근래 타이완 신화에 대한 재조명 및 위상 정립과 함께 통합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의 채록 작업은 일본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조치로 시작되었다.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의 결과 타이완을 할양받은 일본은 첫 식민지 경영의 곤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원주민족의 법제, 의식주, 생업과 종교 등 광범위한 관습과 풍속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제시기 일본의 인류학자와 언어학자에 의해 수집 정리된 1차 자료들은 이후 중국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여기에 구전 텍스트의 광범위한 발굴과 자료 축적을 토대로 원주민신화·고사전집(原住民神話·故事全集)과 원주민신화대계(原住民神話大系) 등이 출간되어

베이난족, 다우족, 샤이사족 등 9개 부족은 1948년 타이완대학 인류학연구소의 분류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2001년 샤오족, 2002년 가마란족, 2004년 타이루거족·싸이더커족, 2007년 싸치라이야족, 2014년 라이루야족·카나카나푸족 등이 추가 인정되었다(Kim, 2015: 46-47).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Lee, 2022: 172-173).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는 주제별로 나누면 인류기원, 홍수, 남매혼, 석두(石頭), 변형, 교혼(交婚), 영웅사일(英雄射日), 선악, 머리베기, 재생, 무속, 창조, 난생, 감응, 금기, 왜소인(矮小人) 모티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한다(Lee, 2011: 20).

이들 신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에는 천지창조와 같은 고사가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그리스, 인도, 중국 신화 등 세계 각지에는 각 민족의 고유문화를 담은 창조 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물음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다. 따라서 전 인류가 안고 있는 궁금증의 추적은 최초 인류의 세계관으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우주기원 또는 천지창조 모티프 유형은 천지개벽 이전 혼돈의 상태에 대한 묘사, 천지개벽의 과정, 그리고 세계창조 이후의 모습과 천지 재보수 등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유형으로는 무의 상태나 혼돈의 상태에서 천지가 창조되는 창조형과 신의 관여 없이 자연적으로 개벽이 된다는 진화형이 있다. 하지만, 타이완 신화는 대부분 세상이 이미 존재하거나 만들어진 상태 이후의 일을 서술한다. 따라서 혼돈과 같은 개벽 이전의 상태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메이족 신화에 의하면, 바다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란위섬은 이미 신에 의해 바다에 만들어져 있다. 아메이족에게 태초의 공간은 암흑과 같은 혼돈이 아닌 천체의 형상이 구체화 되어 있는 바다에서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이인택은 사면이 바다로 싸인 섬에 거주하면서 그 지리적 영향을 받아 섬이 탄생한 고사 정도의 신화만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Lee, 2016: 38-39).

둘째,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는 다른 대륙과의 신화적 융합이나 충돌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인류의 기원에 관한 고사는 풍부하다. 이를테면 외지인과의 결합 또는 혼인 등과 같은 서사 구조가 없다. 이는 신화에서 흔하게 설정하는 토박이문화와 떠돌이문화 간의 결합이 없는 것으로 이례적인 면모이다. 타이완 원주민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토착설, 남래설(南來說), 대륙설, 다원설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국 연해일대의 고월족이 타이완으로 와서 류큐(琉球) 군도와 필리핀 군도에서 온 거주민과 융합해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Kong, 2007: 474). 즉, 17~18세기 이후 중국 본토의 한족들이 이주하기 전까지는, 타이완 원주민족은 대륙이나 주변 이민족과 문화적 충격이나 교류 없이 섬이라는 고립된 지리적 조건 속에서 독특한 문화적 창출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김현선은,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가 신화의 시원적 형태를 간직하고 있으며, 온전한 신화적 체계나 논리를 갖추지 못한 이유로 보았다(Kim, 2010: 43, 51). 아울러 통일된 정치체제나 단일체 구성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특정 주체에 대한 강조 내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각 종족의 시조나 조상의 출생을 담은 족원(族源)신화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셋째, 타이완 원주민족의 신화는 다종의 불규칙 서사를 보이면서도 유사한 에피소드나 모티프를 공유한다. 그 이유를 이주노는 원주민족의 거주지역 간 근접성으로 인한 교차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한다(Lee, 2022: 190). 아메이족, 쩌우족, 부농족, 파이완족, 루카이족, 베이난족

은 모두 타이완의 동남부 지역에, 특히 아메이족을 제외한 나머지 원주민족은 해발 3,000미터 이상의 산악지대인 대무산(大武山), 지본산(知本山), 옥산(玉山)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례로 타이완 원주민족 사이에는 대부분 홍수신화가 전해진다. 여기에는 거대한 뱀, 장어, 게, 멧돼지, 두꺼비 등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홍수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들 동물이 홍수의 해결사가 되기도 하는 독특한 면모를 지닌다. 또한 홍수에 남매혼 모티프가 결합한 서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홍수와 남매혼 모티프 신화는 중국 서남부 소수민족의 고사에도 등장하지만, 구조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남매혼이라고 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신의 노여움을 사면서 그 별로 홍수가 발생했다는 구조는 대륙 소수민족 신화와 유사하다. 그러나 신의 노여움 등에 의해 홍수가 발생하고 이후 유일하게 생존한 남매의 결혼, 그리고 괴태(怪胎)의 출생이라는 일반적 구조와는 달리,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는 홍수 발생의 이유를 근친상간의 징벌로 서술함으로써 정반대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Lee, 2016: 143-144).

타이완 원주민족의 신화는 이외에도 타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서사를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사전적 이해를 바탕으로 원주민족의 신화고사와 전통주거문화의 상호 친연성을 고찰한다.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의 내용과 모티프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므로 논지의 집중을 위해 홍수신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고사 원문은 원주민 신화자료를 체계적으로 채록 정리한 林道生の 원주민신화·고사전집과 부농족 출신 연구자 達西烏拉彎·畢馬(한자명 田哲益)의 원주민신화대계를 중심으로 인용하고, 구체적 사례는 윤일이의 동중국해 문화권의 민가(2005)와 이인택의 타이완 원주민 신화의 이해(2016)를 참고한다.

III. 타이완 원주민족의 신화와 전통주거문화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붕과 벽, 바닥만을 만드는 것이 아닌 주어진 땅의 포용력에 인간의 희망과 욕망을 번역하는 행위이다(Kim, 2014; 33, 234). 이에 건축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 확보 작업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합의를 동반한다. 전통주거문화가 단순히 현상의 물리적 구현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화와 종교, 사회구조 등 모든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어우러져 전통주거문화에는 사회 저변에 자리한 생활양식과 문화현상을 반영한다. 특히, 신화에는 민족의 뿌리의식이 담겨 있으며 인간이 만든 공간에 시간의 흐름으로 내재하여 있다(Kim, 2016: 35).

1. 지리적 요인과 자연 친화적 양태

타이완 원주민족의 전통주거는 그들의 부족수만큼이나 다양하다. 주거형태는 바닥 높이에 따



[그림 3] 고상식
[Figure 3] Form on high



[그림 4] 지상식
[Figure 4] Form on the Ground



[그림 5] 수혈식
[Figure 5] Form in the Ground

라 고상식, 지상식, 수혈식으로 구분한다. 서부 평지에 거주했던 평포족은 높은 기둥 위에 건축한 고상식에서 생활했고, 원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동부해안의 아메이족도 고상식에 거주한다. 지면을 바닥으로 사용하는 지상식 주거는 쩌우족, 싸이사족, 다우족, 베이난족, 파이완족 등에서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바닥 면을 판 수혈식 주거는 북부 산악지대 타이야족의 심수혈과 남부 산악지대 부농족, 루카이족, 파이완족의 반수혈로 나뉜다. 또한, 건축 재료에 따라 나무, 대나무, 락 등의 식물재료가 중심이 되는 대나무집과 초가집, 얇게 분리되는 점판암을 지붕, 벽, 바닥에 사용한 석판옥이 있다(Youn, 2017: 190-191).

타이완 원주민족의 다양한 주거형태와 건축 재료는 타이완의 지리와 풍토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타이완의 지형은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전체 면적의 64%가 100m 이상의 산지이며, 중앙산맥은 평균고도가 3,000m로 최고봉인 옥산(玉山)은 3,997m에 달한다. 기후는 본섬 중앙으로 북회귀선이 지나가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북부는 온대습윤, 남부는 열대 기후로 나뉜다. 또한, 중부와 서부는 높은 산으로 인해 기온의 변화가 크다. 평지와 산꼭대기 사이에는 열대·온대·한대의 세 가지 기후가 모두 나타난다. 무엇보다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 동해안은 태풍의 피해가 크고,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화산이 많고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한편,

산악지대가 많은 관계로 나무와 석재가 건축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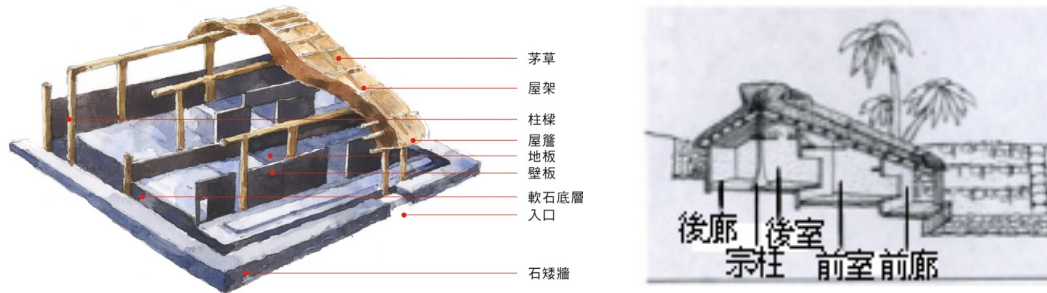
타이완의 열악한 환경 조건은 타이완 원주민족의 홍수신화에도 비중 있게 나타난다. 타이완 원주민족의 신화에서 주목되는 점은 대부분의 원주민족이 홍수신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에피소드와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Lee, 2016: 247). 이는 타이완의 자연환경, 특히 원주민의 거주지가 산악지대라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다양한 고사 중 베이난족의 신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홍수 범람 후 타이완 섬은 해면 위로 부상하였고, 남은 사람은 형제자매 다섯 명뿐이었다. 이들은 절구 모양의 나무 위에 머물면서 표류하였다. 홍수 범람 시에 모든 생물은 침몰하여 죽고 하늘의 태양과 달도 사라졌다. 천지는 캄캄했고 그러자 다섯 형제자매는 그중 한 명을 하늘의 광채로 만들기로 정하고 낮에 후닌(Hunin)이라는 남자를 하늘로 던지니 태양이 되었다. 그리고 밤에는 불란(Vulan)이라는 여자를 하늘로 던지니 달이 되었다(Tian, 2003: 90).

홍수신화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홍수신화는 인류가 자연재해로 인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기억이 반영된 고사이다. 대체로 홍수가 일어나 만물이 사라지고, 홍수의 생존자로 남매가 남으며, 이들이 결혼하여 후대를 번식한다는 서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Lin, 2011: 114). 여기에 다양한 요소가 가미되어 흥미로운 이야기로 재생산된다. 홍수나 지진 등의 불가역적인 현상을 통해 인간이 자연을 극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그 이치에 순응 공존 상생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터득하게 한다. 이러한 자연 친화적 요소가 타이완 전통주거문화의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더욱이 타이완 원주민족의 홍수신화는 세계 질서의 재배열이라는 기능을 통해 민족의 기원, 취락의 구성, 관습과 제의의 유래 등 폭넓게 적용된다고 하겠다.

2. 모계 중심의 사회와 수평적 구조

타이완 원주민족 중 한화(漢化)한 평포족은 모계사회의 풍조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고산족은 모계사회, 쌍계사회, 부계사회, 계급사회 등 여러 유형이 공존하고 있다. 타이완 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이고 매년 태풍이 지나가는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많은 신을 의지하는 신앙이 자리 잡았다. 특히 땅에서 솟아나거나 바다를 건너온 많은 신을 섬겼고,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농반어, 반농반채의 이중적 생계구조를 유지하였다. 해안과 평야 지대에 거주하는 아메이족, 베이난족, 평포족은 농경·수렵·어로를 병행하였고, 고산지대의 부농족, 샤이샤족은 농경과 수렵을 주로 하였다. 노동의 역할이 성별로 구분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농사를 짓는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여성이 많은 권리를 점유하게 된 것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가족구



[그림 6] 다우족의 주거 평면도
[Figure 6] Tao Tribe's residential Floor Plan

조도 모계 중심의 사회 또는 쌍계·부계사회가 공존하는 한편, 주택구성에도 종적 위계와 남녀 구분보다는 기능적 편리를 중시한 수평적 구성을 이루었다(Youn, 2017: 178, 241, 246).

야메이족은 단실주거로 동쪽은 여성공간, 서쪽은 남성공간으로 사용하고 취침할 때는 방 중앙에서 함께 잔다. 파이완족은 주택의 전실은 거실인데 양쪽에 폭넓은 의자가 있어서 손님의 침상으로 사용하고, 후실은 침실을 겸한 주방으로 화덕에 가까운 침상은 여성이 쓰고 그 맞은편은 남성용이다. 다우족 주거의 전실은 자녀들이, 후실은 부부가 사용하고 신혼부부는 따로 산실을 이용하였다. 요컨대 실내에서 남녀가 섞여서 나란히 자는 등 남녀의 공간구분이 없거나 약하고 오히려 여성공간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구성이 그 특징이다(Youn, 2017: 201, 250).

타이완 원주민족 전통주거문화에 자리한 모계 중심의 수평적 구조와 관련해서는 인류기원 모티프 신화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Lee & Gu, 2021: 434). 타이완 원주민의 시조기원을 포함한 인류기원 모티프 신화에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신조인(神造人), 천지가 어우러져 인간을 출생한다는 천지교합생인(天地交合生人), 시조신 또는 신인이 하늘에서 강림하는 천강, 자연 속에서 인간이 출현하는 자연생인(自然生人), 나무에서 인간이 출생하는 수생인(樹生人)과 죽생인(竹生人), 돌에서 인간이 나오는 석생인(石生人), 알에서 인간이 부화하여 나오는 난생(卵生), 동물이 변하여 인간으로 화하는 변형과 화생(化生), 감응에 의한 출생 등 그 유형이 무수히 많다(Lee, 2016: 45). 이 가운데 거석이 갈라지면서 태초의 남녀 선조가 나왔고, 이들이 결혼하여 자손을 번성시킨다는 타이야족 신화가 주목된다.

옛날, 이 땅에 인류가 없었다. 어느 날 빈사이부캉(賓塞布康, Pinsebukan)산 위의 커다란 돌 하나가 홀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두 개로 갈라졌다. 조금 있다가 암석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걸어 나왔고,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나왔다(Lin, 2003: 14).

태고시대에 바바커마 지방에 긴 이끼가 낀 거대한 암석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암석이 자연스레 두 개로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마부다 라는 남자아이와 마양이라는 남자아이, 그리고 루

커사보라는 여자아이 등 세 명의 남녀가 출현했다. 이들은 장시간 함께 있더니 네 명의 아이를 낳았다(Lin, 2004: 29).

기본적으로 고대인들은 큰 돌이나 암석을 생식능력을 지닌 영석(靈石)으로 여겨 만물을 잉태하는 시조로서 숭배했다. 말하자면 타이야족 신화에 남녀가 같은 암석에서 동시에 출현한다는 표현은 남녀평등의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다. 또 파이완족 신화 중에는 거석에서 여인이 출현하고 이 여인이 거석에서 나온 땀을 먹고 살면서 후에 두 명의 딸을 낳았다는 고사가 있다. 여기에서도 여성이 중심이 되는 모계사회 흔적이 엿보인다. 파이완족 신화의 경우에는 남신의 등장과 남녀평등 개념, 모계제의 흔적 등 다양한 사회제도의 조각들이 혼합되어 있다. 그리고 베이난족 신화에는 여신이 인류를 창조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늘에서 강림한 여신의 후예가 혼인을 통해 최초 인류를 탄생시키는 모습은 여성 혈통으로 이어지던 모계사회의 흔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고사와 함께 베이난족이 현재에도 일부 모계사회 관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타이완 원주민족의 모계제도가 신화 속 여신을 통해 확인되고 그러한 신앙이 전통주거문화에 깊게 반영된 흔적임을 시사한다(Lee, 2016: 48, 58, 124).

3. 독립주방의 구성과 화신 숭배

북부 고산에 거주하는 타이야족, 샤이샤족, 쩌우족은 대나무, 나무, 풀 등을 이용하여 대나무 집을 지었고, 중부 및 남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부농족, 루카이족, 파이완족은 한 면이 비스듬한 형태로 얇은 돌판으로 지붕을 덮은 석판옥을 지었다. 동중국해권 민가는 동북아, 동남아와는 다르게 강풍에 대비해 많은 돌을 사용하는 석조 문화권을 이루었는데 타이완 민간도 이러한 석조문화의 특징을 볼 수 있다(Youn, 2017: 191).⁵⁾ 석판옥은 목재에 비하여 견고할 뿐만 아니라 타이완 원주민 민가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돌을 사용한 전통주거는 타이완의 높은 습도와 층해 때문에 좋은 목재가 적은 것도 영향이 있지만 태풍,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이다.

여기에서 타이완 원주민족은 독립된 별도의 공간인 별동형 부엌에 돌로 화덕을 만들어 화신(火神)의 신체로 섬겼다. 동중국해 지역에는 조상의 영혼이나 신령 등의 영적인 존재가 강림하여 돌에 깃든다는 애니미즘(animism)적 신앙이 퍼져 있다(Cheng, 2015: 227). 바다에서 주워 온 3개의 돌로 화덕을 만들고 화신의 신체로 섬긴 것은, 화신이 바다 건너 낙토에서 온 수평신이자, 태양신(여신), 조상신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화신은 불의 진화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가족, 농작, 가축의 수호신으로서 부와 생명을 관장한다고 여겼다. 이를테면 불은 태양, 조상을

5) 타이완 원주민족의 전통주거양식은 다음을 참고할 것. Taiwan Aboriginal Culture Park (n.d.). Aboriginal Traditional Architecture. Retrieved 2023.01.30. from <https://tacp.culture.tw/tacp/zh-tw/aboutus>.



[그림 7] 부농족의 석판옥과 화덕
[Figure 7] Bunun's Slab Jade and Firepit

의미하고 음식·농경·여성으로 연결되는 타이완 원주민족의 신앙 요체라 할 수 있다(Youn, 2017: 236-237). 따라서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 곳곳에서도 불에 관한 고사가 대두된다. 일례로 쩌우족 신화에는 불의 기원과 새의 부리가 짧고 평평하게 된 유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사람들이 파툰쿠오누(위산)에서 홍수를 피할 때, 불씨가 모두 꺼져버렸다. 이에 코요이세라는 새를 파견하여 불씨를 찾아오도록 했는데, 코요이세 새는 비록 불씨를 찾았지만 비행 속도가 너무 느려 불이 새 부리에 닿아 타들어가자 아픔을 참지 못하고 불씨를 그만 포기해버리고 만다. 이에 사람들은 다시 우혼구라는 새를 파견하여 불씨를 취하게 했는데 그 새는 매우 빨리 날아서 순조롭게 불씨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후 사람들은 불씨를 갖게 되고 음식도 삶아서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불을 피워 따뜻함을 누리기도 하였다. 우혼구라는 새는 불씨를 가져오는 데 공이 있어서 특별히 그 새가 밭에서 곡식 알갱이를 쪼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지만 코요이세 새는 오직 밭 주변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 두 새의 부리 끝이 모두 짧고 평평한 형상은 바로 불씨를 취할 때 불에 타서 남은 흔적이었다(Tian, 2003: 44).

홍수로 인한 불씨의 단절과 새를 통한 불씨의 획득, 그리고 새 부리가 짧고 평평한 이유가 불에 뒹기 때문이라는 구성은 자연계 성분과 동물의 형상에 대한 유래를 신화적으로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다. 부농족에게도 새와 관련된 불의 기원, 새의 모습과 그 소리의 유래에 관한 유사한 고사가 전해지며, 루카이족 신화에도 홍수가 나자 사람들이 산으로 피신하였는데 불을 찾아오려 했지만, 불이 꺼져버렸고 이에 파리가 손을 비비는 방법을 배워 나무를 비벼 불을 지폈다는 신화가 있다. 파이완족 신화에는 홍수 때 남매가 나뭇가지를 잡고 생존하였지만, 불씨가 없어져서 나뭇가지를 비벼 불을 만들었고, 이때부터 음식을 삶을 수 있는 불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새 대신 산양이 자원해서 물을 건너 불씨를 취해온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며, 아메이족 신화에는 불의 기원과 꽃사슴의 모습에 관한 내용도 있다(Lee, 2016: 208-209).

불과 관련한 신화가 광범위하게 내려오고 있는 것은 전통주거문화에 불의 사용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Peck, Lee, & Kim, 2020: 52). 추운 지역에서는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한 지붕 안에서 모든 행위를 수용하려 하고, 고온다습한 지역에서는 불에서 나오는 열기가 쾌적한 주거환경에 방해가 되므로 취사공간을 분리하거나 배연을 적극 고려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Youn, 2017: 207). 하지만, 불은 취사, 난방, 조명의 기능적 역할 외에 바다를 건너온 수평신이자 여신으로 인식되어 화신으로 섬겨졌다. 이는 단순 공간배치의 편의를 넘어 주거 공간에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조화를 확인하게 한다.

IV. 나가는 말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 연구는 19세기 말 일본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49년 이후로 타이완 학자들이 연구를 주도하게 된다. 1949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많은 학자들이 타이완 원주민족의 신화를 채집하고 정리하였는데, 주로 인류기원 신화, 시조신화, 홍수신화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1980년대 정명운동의 성격을 띠며 진행된 원주민 운동의 결과로, 1994년 원주민의 정식명칭이 ‘원주민족’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타이완 정부에서도 원주민족 신화의 채집을 적극 지원하였고,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에 관한 연구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타이완의 문화, 언어, 역사, 교육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타이완 원주민족의 신화 연구는 제한적이다. 더욱이 타이완의 전통주거문화와 신화의 상관성 연구는 더욱 미진하다.

의식주 특히 주거문화의 이해는 그 나라의 문화와 문화적 특질을 이해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 여기에 주목하여 전통주거문화 형성에 미친 신화적 요소를 파악하고 신화를 통해 원주민들에게 내재한 실제적 삶에 접근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아직 소략하고 미흡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이완의 독자적인 문화와 그 인식체계를 이해하는 방편으로 타이완 전통주거문화에 투영된 신화의 연결고리를 밝힘으로써 신화가 실제 삶에 투영된 면모를 고찰하였다.

타이완 전통건축은 고상식, 지상식, 수혈식으로 구분하며, 건축 재료에 따라 대나무집과 초가집, 석판옥의 형태를 띤다. 이는 타이완의 자연환경, 특히 원주민족의 거주지가 산악지대라는 사실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원주민족의 자연 친화적 면모가 깃들여져 있다. 이 같은 특징은 타이완 원주민족의 사유체계에 투영되어 대부분의 원주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홍수신화로 표출된다. 그리고 섬의 지리적 요건이 야기한 이중적 생계구조는 여성 중심의 사회를 구성하게 하였다. 주택 구성에서도 종적 위계와 남녀 구분보다는 기능적 편리를 중시한 수평적 구성을 이루었다. 이는 타이완 원주민족 신화 속에서 만물 잉태의 시조로서 표현되는 여신의

다양한 편린을 통해 확인된다. 끝으로 불씨의 획득과 관련한 광범위한 신화는 독립적 공간인 별동형 부엌에 화덕을 세워 화신을 섬기는 형태로 재현된다.

신화와 전통주거문화를 별개의 주제로 논구해 왔던 기존 연구 성과의 한계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전제적 사고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제주와 류큐를 중심으로 한 신화 연구는 지속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유사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타이완의 신화 및 전통주거문화와의 상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가 타이완 신화와 전통주거문화의 상관성에 관한 이해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타이완을 비롯하여 제주, 일본 등의 전통주거문화와의 비교 신화적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 Cheng, C. M. (2015). Taiwan's Religious Cultur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33, 225-257.
- Digital Museum of Taiwan Indigenous Peoples (n.d.). Tao Tribe's Residential Floor Plan. Retrieved 2023.01.30. from <https://www.dmtip.gov.tw/web/page/detail?l1=2&l2=61&l3=28&l4=140>.
- Hankyoreh (2022.11.12.). Taiwanese Aborigines Struggle "Give me back my name": The Other Side of the Campaign for the Correction of Names. Retrieved 2023.01.15. from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66943.html.
- Jeong, Y. S. & Paik, Y. G. (2015). The Taiwanese Indigenous Land Rights Movement and the Changing Relationship of Community and Commons. *ECO*, 19(2), 37-81.
- Kim, H. S. (2010). A Comparative Study on Oral poetry and Myth Oguisaenam-gut of South Coast.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 36, 7-83.
- Kim, Y. J. & Lee, S. J. (2017). A Study on the Integrated Thinking Structure of Women Projected in Jeju Goddess Myth. *Korean Thought And Culture*, 86, 333-356.
- Kim, Y. J. (2016). A study on the Citizens of Jeju Island on Religious Mind through the Space Arrangement of the Traditional Houses in Jeju. *Studies of Chinese & Korean Humanities*, 53, 29-50.
- Kim, Y. J., Peck, Y. J., & Lee, S. J. (2018). Myth and Architecture: Focu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Jeju Myth and Jeju Traditional Houses. *Studies of Chinese & Korean Humanities*, 60, 49-71.
- Kong, B. J. (2007). A Study on the 'Campaign for the Correction of Names' of the Taiwanese

- Aborigines. *Chinese Studies*, 28, 471-501.
- Lee, I. T. (2011). Study on the Myths of Alpine Tribes in Taiwan.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28, 19-38.
- Lee, J. N. (2022). A Study on the Flood Myth of the Taiwanese Aboriginal Peoples. *Chinese Literature*, 111, 171-194.
- Lee, M. A. & Gu, G. B. (2021). Traditional Taiwanese Architectural Elements Symbolizing Indigenous Myths. *Studies of Chinese & Korean Humanities*, 73, 415-437.
- Lee, S. J. & Kim, Y. J. (2022).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yth of two islands and traditional residence spac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1, 233-246.
- Lin, C. H. (2011). A Study of Dialogue Structure on the Flood Myth of Brother-Sister get married in Korea and Taiwan. *Comparative Literature*, 55, 109-140.
- Ministry of the Interior, R.O.C. (2023.01.27.). Population Percentage by Aboriginal Tribe. Retrieved 2023.01.30. from https://www.moi.gov.tw/News_Content.aspx?n=2905&sms=10305&s=275835.
- Peck, Y. J., Lee, S. J., & Kim, Y. J. (2020). The Spatial Composition of the Indigenous Beliefs and Traditional Houses in Okinawa, Japan. *KIEAE Journal*, 20(3), 47-57.
- Taiwan Aboriginal Culture Park (n.d.). Aboriginal Traditional Architecture. Retrieved 2023.01.30. from <https://tacp.culture.tw/tacp/zh-tw/aboutus>.
- Taiwan Indigenous People's Knowledge Economic Development Association (n.d.). Distribution of Taiwanese Aborigines. Retrieved 2023.01.15. from <http://www.twedance.org/aboriginal00.aspx>.
- 김경은 (2021). 집, 인간이 만든 자연. 고양: 이가서. (Translated in English) Kim, K. E. (2021). *Home, Man-made Nature*. Goyang: Leegaseo.
- 김광현 (2014). 건축 이전의 건축, 공공성. 서울: 공간서가. (Translated in English) Kim, K. H. (2014). *Architecture before Architecture, Publicity*. Seoul: Space Library.
- 林道生 (2003). 原住民神話與文化賞析. 臺北: 漢藝色研. (Translated in English) Lin Daosheng (2003). *Aboriginal Mythology and Cultural Appreciation*. Taipei: Han Art Colors.
- 林道生 (2004). 原住民神話・故事全集 5. 臺北: 漢藝色研. (Translated in English) Lin Daosheng (2003). *Aboriginal Myths and Stories 5*. Taipei: Han Art Colors.
- 윤일이 (2017). 동중국해 문화권의 민가. 부산: 산지니. (Translated in English) Youn, I. I. (2017). *A Private House in the East China Sea Cultural Zone*. Busan: Sanjini.
- 이인택 (2016). 타이완 원주민 신화의 이해. 고양: 학고방. (Translated in English) Lee, I. T. (2016). *An Understanding of Taiwanese Aboriginal Mythology*. Goyang: Hakgobang.
- 田哲益 (2003). 排灣族神話與傳說. 臺中: 晨星出版. (Translated in English) Tian, Z. Y. (2003). *Paiwan Myths and Legends*. Taichung: Morning Star Publishing.